

“간서치 책방서 책경매 참여해 보세요”

대인야시장 별장 프로젝트
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열려
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
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진행
싼 값에 사고 참여하는 재미

“900원 나왔습니다. 1000원 없습니
까?”

25일 야시장 ‘별장’이 열린 대인시장에
서는 한창 책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. 갓
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경매사는 사람들
에게 손에 든 책을 보여주며 응찰을 유도
중이었다.

경매 소리에 이끌려 삼삼오오 모인 사람
들은 마음에 드는 책이 나오자 지갑을 꺼
내들기에 바빴다.

이날 시장내 쉼터에서 펼쳐진 책 경매는
별장프로젝트 사무국이 인문예술시장 프
로젝트의 하나로 기획한 제1회 ‘간서치 책
방’ 행사다.

‘간서치’(看書癡)는 ‘독서를 최고의 즐
거움으로 여기는 책 바보’를 의미하며 조
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자신에게 붙인
말이다.

지난해 10월 ‘한글날’을 맞아 시범적으
로 열렸던 간서치 책방은 높은 호응에 따
라 올해부터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올
렸다.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열리며
일반인들이 서책(조선시대 책장수)로 참
여해 한책을 판매하는 책방과 책쾌(책 경
매사)가 진행하는 경매로 구성된다.

가장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건 경매
다. “책이 있는 한 책을 팔라다니겠다”를
신조로 삼은 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
책쾌로 나서 채지있는 입담으로 유쾌한 분
위기를 만들었다.

책들은 모두 기증본이다. 일반인들과
지역 명사들이 기부한 책들로, 소설부터



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경매사로 나서 지난 25일 대인예술야시장 ‘간서치 책방’에서 책경매를 진행하고 있다.

자기계발서, 미술관련 서적 등 종류가 다
양한 만큼 어떤 책이 경매에 올라올지 기
다리는 재미가 있다. 또 수익금은 모두 불
우이웃을 위해 쓰이며 의미를 더한다.

경매 시작가는 판매가 10%부터 출발하
며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까닭에 대개
1000원이면 손에 넣을 수가 있다. 책에 가
격이 표시돼 있지 않다면 경매사의 권한으
로 50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. 이날
해민스님의 ‘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’
은 1000원에 팔렸고 공지영 소설 ‘우리들
의 행복한 시간’은 700원에 낙찰됐다.

책 인기에 따라 역경매를 할 때도 있었
다. 자기계발서를 들고나온 이 교수는 사
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1000원부터 시

작해 10원씩 가격을 내렸다. 결국 500원까
지 내려갔지만 유찰됐다.

오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된 1부에서는
약 10여권의 책이 팔렸다. 평균 3~5분당
한권씩 팔려, 좋아하는 책을 놓치지 않으
려면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하다. 또 현
금으로 결제해야하기 때문에 1000원짜리
와 100원짜리 준비는 필수다.

2부는 찾아가는 경매행사로 치워진다.
이 교수는 시장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들
을 상대로 현장 경매를 펼쳤다. 보유하고
있던 책 서너권은 금방 동이 났다.

경매장 뒤편에서는 일반인들이 미니 책
방을 열었다. 가격은 대부분 3000원 내외
로, 판매자의 취향과 성격을 가늠해 볼 수

있는 책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다.

파울로 코엘료의 ‘오 자하르’를 700원에
낙찰받은 김명신(33)씨는 “경매가 신기해
참여해봤는데 평소 좋아하던 작가 책이 나
와서 바로 구입했다”며 “책 상태도 괜찮
고 무엇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다음
행사 때도 참여할 생각이다”고 말했다.

경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별장
이 열리기 3일 전까지 홈페이지로 신청했
는다. 직접 판매할 현재 20권과 경매에 기
증할 2권을 준비하면 된다. 모두 8팀을 모
집하며, 책이 완판되더라도 야시장이 끝
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한다. 문의 062-
233-1420.

/김용희기자 kimyh@kwangju.co.kr



‘춘풍화계’ 광주의 봄 수놓다

광주시립창극단, 30일 문예회관서 공연

광주시립창극단에서 이름을 바꾼
광주시립창극단이 아름다운 봄을 노
래한다.

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
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
연의 주제는 ‘환생-춘풍화계(還生-春
風花界)’다.

‘환생-춘풍화계(還生-春風花界)’는
국극단에서 창극단으로 새롭게 다시
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환생(還生)과
봄철에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춘풍
(春風), 꽃이 널리 만발한 모양을 뜻하
는 화계(花界)의 의미를 담았다.

이번 공연에서는 가무악이 어우
러진 총체극 ‘신의 소리’와 기악극
연주가 펼쳐지며 많은 이들에게 사
랑받는 단막극 ‘심청가’를 선보인
다. 또 관객들과 함께 흥겹게 즐길
수 있는 사물판국, 벽구춤, 진도북
춤이 펼쳐지며 신명난 민요 가락도
만날 수 있다.

티켓 가격 전석 1만원. 공연예매와
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
페이지(gjart.gwangju.go.kr)에서 확
인할 수 있다. 문의 062-526-0363.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취정 임춘식 서예전 31일까지 문화전당 창조원

취정 임춘식 서예가가 오는 31일까
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
북화관(5-1)에서 열린다. 이번 전시는
문화전당으로부터 아시아창작스튜디오
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예총 후
원으로 마련됐다.

임 작가는 전시에서 시·서·화를 담
은 서예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.

작품 특징은 편안함이다. 전통과 현
대가 공존하는 작품세계를 추구해온
임 작가는 글씨에 화화성과 조형성을
가미한다. 한자 교육이 부족한 관람객
들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작
품을 추상화 형식으로 제작했다.

예서와 전서를 주로 쓰고 해서, 행
서, 초서 등 다양한 글씨체도 보여준

다. 또한 주제에 대한 해설을 함께 배
치해 작품 이해를 돕는다.

작품 ‘군주민주’(君舟民主·사진)는
백성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
한다는 의미로 현 상황을 빗댄 작품이
다. 하루 빨리 정국이 안정돼 국민들
이 마음 편한 세상을 오길 바라는
마음을 담았다.

임씨는 호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
한국화 전공을 졸업하고 개인전 10회
를 열었다.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
문 심사위원장, 국제서법 예술연합 한
국본부 호남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
재 취정서예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.
문의 062-528-9207.

/김용희기자 kimyh@kwangju.co.kr

이명란 신작 시집 ‘오색찬가·어머니’ 펴내

“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, 과거와 현재,
미래를 아우르는 나라요, 눈물이요, 역사
이다. 어머니의 시 작품 속에는 삶의 히로
에라이 있다.”

시인이자 화가인 이명란 씨가 신작 시집
‘오색찬가·어머니’(5집·한림출판)를 펴냈
다. 지난 2015년 동일한 제목으로 펴낸 시
집에 이어 2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집이다.

시집은 모두 ‘어머니’를 소재로 하고 있
다. 한마디로 ‘어머니의, 어머니를 위한
시’라고 할 수 있다. 작품집에는 그리움,
사랑, 고향, 생명, 자비 등 어머니로 상징
되는 따스하고 정감어린 작품들이 수록돼
있다.



일반적인 모성을 소
재로 한 시 외에도 ‘세
월호’ ‘오월 어머니’ 등
아픈 역사와 상처를
감내하는 어머니의 모
습을 형상화한 시들도
있다. 모든 작품은 희
생과 눈물로 세상을 아우르는 어머니의 넓
고 깊은 사랑과 연계된다.

한편 시집에는 시인이 작시하고 오군영 씨
가 작곡한 악보도 몇 편 수록돼 있다. 현재
이 시인은 사회복지사와 프리랜서 외에도 한
국화 ‘실사화’ 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

/박성천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정유정 ‘7년의 밤’ 7주년 기념 한정판 출간

함평 출신 정유정 작가의 ‘7년의 밤’ 7주
년을 기념하는 특별 한정판이 출간됐다.

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‘7년의 밤’ 7주년
을 맞아 5000부를 단독 출간했다고 밝혔
다. 이번 출간은 독자들에게 다시 알릴 만
한 스테디셀러를 재출간하는 ‘본 투 리드
(BORN TO READ)’ 프로젝트 일환의 10
번째 도서다.

지난 2011년에 발간된 ‘7년의 밤’은 국
내에서만 40만부가 판매될 만큼 인기를
끈 소설이다. 액자소설 형태의 작품은 살
인마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
소년의 이야기다. 특히 작가는 실수로 인
한 살인이 불리는 파멸, 선과 악, 사실과



진실 사이의 이면에 초
점을 맞췄다. 무엇보다
다 놓칠 수 없는 삶에
대한 의지 등 평범한
필력으로는 감당하기
어려운 소재와 이야기
를 탄탄한 서사와 밀
도 있는 문장으로 형상화했다. 작품은 올
해 영화로도 개봉될 예정이다. 또한 소설
은 독일, 프랑스, 일본 등 7개국으로 판권
이 수출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. 독일에서
는 독일 주간 신문 디 차이트에서 ‘2015년
최고의 범죄소설’ 9위에 오르기도 했다.

/박성천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www.aroma-life.co.kr

「 ‘건강’과 ‘아름다움’을 모두 잡은 」

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**아로마라이프**

-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

-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

-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(별단면육각형)

- 특수 물질가공(원적외선, 음이온 방출)

(주)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**1588-2219**

아모리온
브라+슈트+거들
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

아모리온 롱바디
브라+슈트+거들+레깅스
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

아실리바디슈트
블랙은사 바디슈트의
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

비비드아모르
러닝+팬츠 일체형
남성용 슈트